

Vol. 55

2019. 8

<Go On>을 펼쳤다면  
이미 당신은 여행자입니다

# Go On

TRAVEL MAGAZINE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 보낸 여름 휴가  
에어비앤비 트립 & 판도르프 디자이너 아울렛

## TRAVEL TO BALI & YOGYAKARTA 2-STEP TRAVEL CARE FOR US

나트랑 아마노이 리조트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

₩7,500  
9 77238293002  
ISSN 2383-9937

## 발리에서의 디톡스

여행지로서 발리의 명성은 세계적이다. 그곳의 매력을 휴양과 액티비티 그리고 허니문 등에서 흔히들 찾지만, 이전에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강인한 내면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신성한 기운이 넘쳐흐르는 섬이다. '신들의 섬'이라고까지 불리는 발리기에 트래블케어의 시작은 조금 과감하게 시작해도 좋다. 우리 사이에 침입한 독소부터 빠르게 제거해야 할 시간이다.

SPONSORED BY Dusit Hotel & Resorts,  
Paradise Bintang Bali

# DETOUX



# I N B A L I

트래블케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많은 형태의 숙소가 저마다 뿔을 내고 있는 발리에 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갖춘 숙소를 찾아내는 수고가 여행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 머무는 가정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거실과 방, 주방과 욕실 등의 기본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을 찾는 것이 좋다. 때문에 이번에는 빌라가 답이다. 여행객을 위한 숙소가 수도 없이 많은 발리에는 빌라의 수 역시 상당하다.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고 클래스도 다양하다는 사실. 함께하는 인원, 예산에 따라 머물 곳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케어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그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곳으로, 그리고 케어를 위해 몰심양면 아낌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마음을 굳혀보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결정은 조금 더 쉬워지게 된다.

# Elite Havens

엘리트 헤븐

발리에서 트래블게어를 위해 추천하고 싶은 빌라는 럭셔리 빌라 렌털 브랜드인 엘리트 헤븐 소속의 빌라들이다. 최근 태국의 유명 호스피탈리티그룹인 두컷 호텔&리조트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롭게 포지셔닝 하며 기존 엘리트 헤븐의 럭셔리한 하드웨어에 두잇이 자랑하는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까지 더했다. 발리에는 엘리트 헤븐의 빌라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취향과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이점도 갖추고 있다. 게다가 각 빌라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빌라내에 세심하게 표현해놓아서 여행지의 문화와 특성을 보다 편안하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엘리트 헤븐을 선택해도 좋은 이유다. 케어를 위한 완벽한 휴식과 여행을 병행하기에 엘리트 헤븐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

각 빌라의 곳곳에 스며있는  
발리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조각  
그리고 푸른 바다 앞에서 컬러풀한  
생동감을 더해주는 가드닝 등은  
언제나 발리에 있음을 그리고  
여행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



## PANDAWA CLIFF ESTATE

판다와 클리프 에스테이트

### 에스닉에 우아함을 더한 별장

발리 부킷 반도 Bukit Peninsula의 최남단, 인도양의 망망대해가 눈부시게 펼쳐지는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판다와 클리프 에스테이트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발리 건축가 포포 다네스 Popo Danes가 설계했다. 팔라 The Pala, 빌라 로즈 Villa Rose, 빌라 마리 Villa Marie 그리고 빌라 마르키사 Villa Markisa까지 모두 4개의 빌라에 2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팔라와 빌라 마리에는 6개, 빌라 로즈에는 4개, 빌라 마르키사에는 5개의 베드룸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 6개의 프라이빗한 수영장은 높은 절벽 위에서 인도양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수영과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풀 사이즈 테니스 코트, 스쿼시 코트, 피트니스 센터 및 스파 등이 공용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건강 역시 챙길 수 있다.





아직 여행객들이 뜬 판다와 비치는 현지인들이 숨겨둔 해변, 그리고 현지인들만 찾아가는 보석 같은 해변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여행객들로 항상 붐비는 여느 유명 해변과는 달리 발리의 해변을 한가로이 즐길 수 있어 우리에게는 더욱 매력적이다. 판다와 클리프 에스테이트는 이런 판다와 비치의 장점들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으며, 빌라의 구조와 배치, 공간 구성 그리고 실내외의 인테리어까지 숙박객들이 이곳만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썼다. 하나의 뉴턴 안에 4개의 개별 빌라가 모여 있지만, 서로의 공간에서 방해받는 일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일행들이 빌라 내에서 각자의 프라이빗한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용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모든 인원이 모든 시간 동안 '만족'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게 된다.

각 빌라의 곳곳에 스며있는 발리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조각 그리고 푸른 바다 앞에서 컬러풀한 생동감을 더해주는 가드닝 등은 언제나 발리에 있음을 그리고 여행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또한 객실, 응접실, 야외수영장, 실내외 휴식 공간, 식사 공간 등 모든 곳에서 발리의 성스러운 기운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억 속에 더해진다. 이것만 해도 고마운데 판다와 클리프 에스테이트에는 두짓과 엘리트 헤븐이 자랑하는 럭셔리하고 우아한 서비스가 추가됐다. 발리의 질 좋은 재료로 즉석에서 셰프가 선보이는 건강한

요리와 음료, 버틀러를 비롯한 가사도우미, 정원사, 보안 요원 등 모든 스태프들이 24시간 살피주는 안전함과 세심함, 발리의 명소들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발리의 이정표와 같은 객실 매거진까지, 우리가 여행 중에 머무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함께 찾기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판다와 클리프 에스테이트. 감히 스트레스 제로에 도전해도 좋은 강력한 공간이다.

**예약**

reservations@elitehavens.com  
<https://www.elitehavens.com/pandawa-cliff-estate-villa/the-bukit-bali-indonesia.aspx>  
[www.pandawacliffestate.com](http://www.pandawacliffestate.com)

# Ubud tour

우붓 투어

## 마음의 문을 여는 하루

트래블케어를 위해 발리에서 가장 알맞은 목적지로 우붓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쉬어가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래전부터 우붓을 찾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대단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우붓이지만 그곳이 살아온 시간을 배우는 것이 마치 여행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도 되는 듯 말이다. 단 하루라는 시간은 그렇게 우붓을 제대로 배우고 미래를 그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우붓이라는 이름을 담아가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않은 시간이다. 아침식사를 마쳤다면 얼른 우붓의 품으로 달려가 보자. 준비할 것은 단지 우붓을 알고 싶어 하는 열린 마음 하나뿐이다.

우붓은 세계적인 여행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유명 관광지와는 달리 오래도록 이어져온 발리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로컬 마을 안에 잘 보존하고 있다. 때문에 발리 전통가옥은 비록 관광지로 꾸며 놓았다고 해도 발리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나름 괜찮은 학습 장소가 되어준다. 그들의 신앙 원리에 따라 집을 지으며, 모든 집들은 규모와 장식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설계가 같다는 것, 여러 채의 건물들이 모여 하나의 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각 마을에는 산 방향, 마을의 중심 그리고 바다 방향에 세 개의 사원이 있는데 이는 각각 머리, 몸, 발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신을 모시는 사원을 집안에도 만들어 두며, 가장 성스러운 산 방향에 짓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들이 사는 공간보다도 더 귀한 자리에 신을 모시는 그들만의 독특함이 강하게 베인 공간이지만, 결국 린딕과 같은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고 듣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바다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산속 마을로 올라가면 발리에 있는 게 맞나 싶은 풍경이 기다린다. 인류가 만들어 낸 생존을 위한 가장 강인한 모습이기도 한 라이

스테라스, 뜨갈랄랑 라이스 테라스 Tegalalang Rice Terraces다. 과거보다 라이스 테라스 공간이 많이 협소해진 이곳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상업적인 시설들이 적지 않게 들어서 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모습도 종종 만날 수 있다. 라이스 테라스에 만들어진 좁다란 길을 따라 하이킹을 잠시 즐기면서 곳곳에 꾸며 놓은 포토존에 들러 사진을 찍고 사향고양이가 만들어 내는 루왁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마음이 동한다면 밀림 속을 날아다니는 그네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무뚝뚝한 표정의 러시아 남자도 힘찬 환호성을 지르는 놀이이니 마음의 문을 열기에 꽤 괜찮은 시도일 지도 모른다.

“

그곳이 살아온 시간을 배우는 것이 마치 여행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도 되는 듯 말이다.”



